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평가정책과 섬유사무관 권순각

살아가면서 종종 남으로부터의 글 한 구절, 말 한 마디가 천군만마처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가 있다.

“아, 그 말이었구나. 어쩌면 내게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반면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정머리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특히 갑작스레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더 그러하다.

우리네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무인도에서처럼 혼자 사는 삶이 아닌 바에는

누구든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살아간다.

말은 물론이거니와 돈, 마음, 심지어는 중요까지 주거나 받거나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거나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반대로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도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들고 돈다는 얘기다.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입장이 안 되란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인간도 없고, 그렇다고 100% 불완전한 인간도 없더라고...”

약간의 완전함이 있는가하면 약간의 불완전한 면 즉 양면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위사람들...

가족들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가수 김건모가 노래 불러 히트한 “핑계”의 가사

처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니가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나?”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 맨 몸으로 시작한다.

어쩌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처음 입사할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면
 뭐든 문제가 될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처음 직장을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마
 음을 먹었을 것이다.

젊음의 의욕과 직장을 구했다는 감사와 소박한 마
 음으로

“나는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뭐든지 다 해 낼
 꺼야” 신약성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라
 고 권고하고 있다.

물론, 호언 장담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순수한 마음이 바뀌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변덕이 생기는 것 또
 한 완전한 인간이 아님을..

그러나, 누구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상대방 입
 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
 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실망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위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